

초격차·세대교체·준법경영... '뉴삼성' 혁신 드라이브

다시 기업가정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기업이 한 나라의 문화를 바꾸는 자본주의 시대다. 정부가 술한 캠페인과 아이디어를 내놔도 한 기업이 도입한 사내 복지가, 때로는 기업의 총수가 보여준 한 행동이 사회에 더 큰 반향을 일으키곤 한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이러한 우리 사회의 변화를 가장 잘 아는 인물 중 하나다. 그런 그의 행보는 사업보국(事業保國)을 말하던 창업주 호암 이병철 전 삼성 회장을 닮아있다. 다른 점은 시대가 변하며 한국이 세계에서 문화와 기술을 선도하게 되며 보폭이 커졌다는 점이다. 이 회장은 삼성의 나침반이면서 동시에 엔진으로써 활약하고 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술선수범'의 기업가정신을 보여주고 있다. 직접 세계 곳곳을 누비고 노력으로 만든 글로벌 네트워크를 심분 활용하며 번거로움을 마다않는다. 이익을 좇아 회사를 통해 좋은 일 하고 떠날 리기 보다는 남 모르게 술선수범한다.

이 회장, 기업가 정신 '술선수범' 폭넓은 글로벌 네트워크 적극 활용 해외수주·M&A 등 해결사 역할

이 회장의 업적을 말할 때면 항상 그의 글로벌 네트워크가 거론된다. 이 회장은 기업 내에서 폭넓은 글로벌 네트워크를 활용해 미래 먹거리를 발굴하고 핵심 사업을 키우는 '해결사' 역할을 하고 있다. 나침반의 역할만을 하며 손가락 지시만을 이어가는 기업인들과 달리 결정적인 순간 직접 나서서 문제를 해결시키는 게 바로 이 회장이다.

대표적인 일이 지난 2020년 삼성전자가 이동통신 세계 1위 버라이즌과 7.9조 원 규모의 네트워크 장비 장기 공급 계약을 체결한 사건이다. 당시 8조 원에 달하는 장기 공급 계약은 이 회장의 한스 베스트베리 버라이즌 CEO와의 인연이 계약 성사에 결정적 역할을 했다. 두 사람은 2010년 스페인 바르셀로나 MWC에서 처음 인사를 나눴는데, 이 회장은 2012년 스웨덴 발렌베리그룹 경영진이 방한 한 때 에릭슨 회장 자격으로 온 베스트베리 CEO를 비공개 만찬에 초청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했다. 삼성에 따르면 당시 베스트베리 CEO는 만찬 후 "삼성전자와 4G 이동통신 분야 공조를 하고 싶다"고 밝혔는데, 이 회장은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코로나19 사태 속에서도 수차례 전화와 영상회의를 거치며 삼성의 장점을 어필했다. 몇 년에 걸친 이 회장의 러브콜은 결국 8조 원에 달하는 수주 결과로 돌아왔다.

세계 관계자들은 "버라이즌의 까다로운 입맛을 맞추는 데 성공한 것은 결국 기술력과 보안성은 물론, 총수가 보여준 열정과 오랜 신뢰, 협력 관계 덕"이라고 평가했다.

세계 초유의 기업들만이 이 회장의 환대를 받는 것도 아니다.

지난해 11월, 이 회장은 삼성의 일본 내 협력회사 모임인 'LJF(Lee Kunhee Japanese Friends)' 정례 교류회를 주재하며 미래사업 전략을 공유하고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LJF는 이견희 선대회장이 일본 내 ▲반도체 ▲휴대폰 ▲TV 등 IT업계 기업들과의 협력 체제 구축을 제안해 1993년 시작된 모임이다. 이견희 선대 회장이 '구매의 예술화'를 통해 협력사들의 성장에 곧 삼성의 초일류 기업으로의 성장 발판이 된다고 말한 바를 이 회장 또한 공감하고 계속 이어가고 있는 격이다.

앞서 이 회장은 2021년 1월 평택 반도체 생산라인 설비 반입식에서도 원익IPS, 솔

브레인, 피에스케이, 동진세미켐 등 협력사 대표들을 초대해 국내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생태계 육성 및 상호 협력 증진 방안을 논의한 바 있다. 이 회장은 반입식에서 "함께 하면 미래를 활짝 열 수 있다. 삼성전자와 협력회사, 학계, 연구기관이 협력해 건강한 생태계를 만들어 시스템반도체에서도 신화를 만들자"며 다독였다.

반도체 부문 등 과격 인사 단행 장기적·근원적 기술경쟁력 확보 작년 사회공헌 정보량 최다 기록

기업 활동 밖에서도 이 회장의 '술선수범' 정신은 빛나고 있다.

이재용 삼성 회장은 지난 4월 데이터엔리서치가 발표한 바에 따르면 지난해 상위 10대 기업집단 수장 중 가장 사회공헌에 많은 관심을 쏟았다. 12개 채널 23만개 사이트를 대상으로 지난해 1월부터 12월까지 10대 그룹 총수의 사회공헌 관련 포스팅에 대한 빅데이터 분석 결과다. 이 회장은 지난해 1년간 총 7589건의 사회공헌 관련 정보량을 기록했고, 이는 2위를 차지한 최태원 SK 회장 3832건의 2배에 달하는 수준이었다. 지난달 국제청법인공시에 따르면 이 회장은 지난해 호암재단에 개인 자격으로

2억 원을 기부하며 삼성계열사를 제외한 유일한 개인 자격 출연자(기부자)로 이름을 올린 바도 있다. 국가를 위한 기업 경영을 했던 창업주 호암 이병철 선생의 유지가 대를 이어 이재용 회장에게까지 이어지고 있는 셈이다. 최근 이재용 회장은 서울 영등포 쪽방촌 요셉의원에 20년 이상 후원을 이어온 사실이 뒤늦게 밝혀지기도 했다.

인적 네트워크의 힘이 빛나는 이 회장의 경영 행보지만 과감성도 있다.

최근 삼성은 핵심 사업인 반도체 사업을 담당하는 DS 부문 수장과 '사업지원 TF' 반도체 담당을 전격 교체했다. 통상 연말 임원 인사를 진행하는 의례를 갠 깜짝 인사에는 최근 폭주기관차처럼 반도체 시장이 넓어지고, 또 급격히 변화하는 가운데 삼성이 경쟁에서 밀리고 있다는 위기의식에서다. 경계현 사장에서 전영현 부회장으로 수장을 교체하고, 김용관 전 미래전략실 부사장을 반도체 담당 사업지원 TF로 복귀시켰다. 이 회장은 '뉴삼성'의 기반을 '초격차 기술'에 두고 "변하는 환경 속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핵심은 장기적·근원적 기술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라고 핵심 성장 동력을 설명했다. 실제로 삼성은 갤럭시 S24 시리즈를 통해 '최초'의 타이틀을 단 온디바이스 AI 스마트폰 시대를 개막하는 등 인공지능(AI) 기술이 ICT 산업계를 강타한 최근 선두를 지켰다. 그러나 반도체 부문에 있어서는 D램, 낸드플래시 시장에서 HBM 시장으로 급변한 상황에 제때 대처하지 못하며 경쟁사에 밀렸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 회장은 원포인트 인사를 통해 인경 경영을 추구한다는 주변의 의심을 불식시켰다.

이 회장의 정신은 기업 문화에도 영향을 미쳤다. 매년 회사에서 운영하는 사회공헌 활동 중 가장 많은 기부액이 물리는 사업은 바로 자립준비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는 '삼성희망디딤돌 사업'이다. 2016년 시작으로 지난달 23일 열 한번째 '삼성희망디딤돌' 대전센터가 개소했다. 올 10월 충북센터가 문을 열 예정이다. 자립준비청년들은 센터에서 자립 생활관에서 최대 2년간 1인 1실로 거주할 수 있으며 앞으로 보호가 종료될 만 15~18세 청소년들은 자립체험관에서 며칠간 거주하며 자립생활을 미리 체험해 볼 수 있다. 삼성희망디딤돌은 이 회장의 "같이 나누고 함께 성장하는 것이 세계 최고를 향한 길"이라는 '동행 철학'을 담은 사회공헌 활동이다.

/김서현 기자 seoh@metroseoul.co.kr



지난 2022년 12월 아랍에미리트(UAE)에 위치한 바라카 원자력 발전소 건설 현장에 방문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건설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삼성전자로부터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을 받은 부산 소재 중소기업 '동아플레이팅'을 방문해 제조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지난달 26일(현지시간) 독일 오버코헨 자이스(ZEISS) 본사를 방문해 경영진과 대화하고 있다.